

Special

일본의 의료분야 노동운동 실태



글 · 남 상 요(사진), 니시야마 다카유키
유한대학 보건의료복지연구소

I. 일본의 노동조합의 조직상황

일본의 노동운동은 정체상태에 있다. 2003년 현재 일본의 전고용자는 5,300만명인데 노동조합원수는 1,530만명, 조직율은 매년 저하하여 2003년 시점에서 19.6%로 추정되고 있다. 일본의 노동단체별 조합원의 구성은 다음<표 1>과 같다.

<표 1>노동단체별 노동조합원수의 추이(단위:천명)

	합계	일본노동조합 총연합회	전국노동 조합총연합	전국노동 조합연락협의회	기타	무가맹
1995	12,613	7,725	859	273	2,805	1,167
1996	12,451	7,657	859	281	2,747	1,137
1997	12,284	7,573	843	274	2,714	1,112
1998	12,092	7,475	837	269	2,662	1,077
1999	11,824	7,334	827	265	2,578	1,044
2000	11,538	7,173	801	257	2,513	1,005
2001	11,212	7,001	780	247	2,424	964
2002	10,800	6,828	787	168	2,276	930
2003	10,531	6,694	764	160		

자료: 노동운동백서 2003년 후생노동성편집 일본노동연구기구발행

II. 의료관련분야의 산업별 노동조합

(1) 일본의료노동조합연합회(医劳連)

일본의료노동조합연합회(医劳連)는 전국노동조합총연합회(全劳連)에 소속되어 있으며, 그 구성원은 17만5천명이다. 의노련(医劳連)은 1957년에 결성되어 7개의 전국조합, 46도도부현 의노련(医劳連)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립병원, 국립요양소, 자치단체립병원, 일본적십자사 병원, 후생연금병원, 사회보험병원, 산업재해병원, 국가공무원공제연합회병원, 공립학교공제조합병원, 제생회병원등의 전국적인 병원이나 국공립사립대학의 부속병원, 민간의 병원, 진료소, 노인요양소·보건시설, 조제약국 등 설치주체나 기업규모의 차이를 넘어서서 의료복지의 현장·관련사업소등에서 일하는 노동자·노동조합이 가입하고 있다. 현재 의노련(医劳連)의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 ① 의료·복지노동자의 생활과 노동의 실태에 준한 임금의 대폭인상
- ② 모든 직종의 대폭증원, 직장의 필요인원의 확보, 노동조건 개선
- ③ 야근체제·간호체제의 「합리화」반대, 양질의 간호실현
- ④ 간호제도의 일체화, 준간호사 전원의 간호사로의 즉시교체
- ⑤ 국공립을 시작으로 모든 의료기관의 통폐합·축소반대, 지역의료·복지의 확충

(2) 전일본국립의료노동조합(全医劳)

국립병원·국립요양소, 국립센터병원, 한센병 요양소에 근무하는 의사, 간호사, 의료기술자, 사무, 조리사등의 서비스부문, 원내보육소 등 모든 부문의 직원이 가입하여 있는데, 2003년 현재 2만6천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국177개의 지부(2003년 12월 현재)를 기준단위로 하여, 이외에도 50개의 지구협의회, 179개 시설이 있다.

전의노(全医勞)의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 ①국립병원·요양소의 삭감에 반대
- ②의료사고의 박멸
- ③계약제 직원의 고용확보와 처우의 개선

국립병원·요양소의 직장에는 똑같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6500명이나 되는 「계약직원」(정원외직원)이 일하고 있다. 계약직원은 불안정한 신분과 열악한 처우에 놓여 있다. 희망자 전원의 고용계속, 임금단가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 ④의료·사회보장의 충실

의료·사회보장제도개혁반대를 시작으로, 국민의 생명과 생활을 지키기 위하여, 환자단체등 광범위한 국민각층과 같이 국민분위의 정책실시를 요구하고 있다.

Ⅲ. 의료관련분야의 노동운동사

(1)인권투쟁 「병원파업」

1960년부터 61년에 걸쳐, 일본의 의료노동자는 대규모의 병원파업을 결행하였다. 당시 의료계에 노동조합은 적절치않다며 노동조합을 적대시하는 뿌리깊은 전근대적인 노사관계가 있어 의료노동자의 생활과 노동조건, 나아가 인권까지 억제하고 있었다.

1957년에는 산업별조직으로서 「일본의료노동조합 협의회(日本医療協)」이 결성되었다(당시의 조직인원은 3만3천명). 1960년, 61년에는 의료노동조합운동 처음으로 산업별 전국투쟁이 벌어져 330개 병원, 3만8천명이 참가하는 「병원파업」으로 발전하였다.

이 파업은 당시의 정부의 저의료비정책(의료에의 정부로부터의 재정지출을 억제, 모든 의료기관의 독립채산제의 추진)에 타격을 주었다. 이후 정부와 의료기관 경영자는 지금까지의 전근대적인 노사관계나 주먹구구식의 경영을 전면적으로 보완하여 근대적인 노사관계와 근대적 수법에 의한 철저한 자본주의적 경영을 추구하기 시작하였다.

일본적십자사는 전국에 존재하는 100여개의 병원 중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병원이 몇 차례에 걸쳐 파업을 반복하였다. 가혹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공무원에 준하는 임금의 확보를

목표로 다음과 같은 5항목의 조건을 요구하였다.

- ① 일률적으로 5000엔의 임금인상, 최저임금 10,000엔의 확보
- ② 노동협약의 개정
- ③ 연말 일시금의 확보
- ④ 병원의 폐지에 따른 인원정리 반대

이 파업은 전국적인 파업으로 확대, 국회에서도 문제시되어 후생성은 병원경영의 개선책을 검토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 대책을 세웠으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알선을 수락하였다.

(2) 「2·8투쟁」

간호사의 야간근무는 매달 약반수를 넘어 간호사에게 있어서는 심각한 문제였다. 1963년에 인사원에 대해 「간호사 등의 야간제한에 관한 행정조치 요구」를 제출하여, 인사원은 실태 조사를 행해 1965년에 「간호사의 야근은 월 8일, 병동의 일인야근은 계획적으로 폐지해야한다」고 판정하였다. 이 판정을 배경으로 「2·8투쟁(야근은 2명이 월 8일이내)」이라하여 간호사의 비인간적인 노동조건 개선과 「인력감축」반대, 의료서비스 수준향상을 목표로 19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 초반까지 투쟁하였다.

이 투쟁은 가맹조직의 틀을 넘어 모든 의료노동자를 격려함과 동시에 정부, 의료경영자의 합리화 정책에 타격을 주어 의료노동자의 증원, 노동조건 개선, 의료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실현하였다.

(3) 그 후의 노동운동

의료노동조합운동은 이 두 가지 대투쟁을 통해 의료노동자 자신의 생활과 권리의 옹호와 함께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료기관 만들기를 연결하여 이를 같이 진행한다는 운동노선이 확립되는 계기가 되어 이후 타산업분야와 마찬가지로 의료노동자에 의한 파업은 거의 볼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급여는 여전히 타산업과의 격차가 크다. 또한 인력부족으로 인해 격

무에 시달리는 간호사의 경우 교대근무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피로가 심하고 대부분의 간호사가 잔업을 해야 하고 건강에 불안감을 가지며 만성적인 피로에 시달리는 등의 문제점을 여전히 안고 있다. 이로 인한 의료사고가 염려되어 간호사 배치기준의 강화와 외래, 수술실 등에서의 간호료 수가인상 등의 과제가 대두되고 있다. 일본의 병상당 간호사수는 선진국에 비교해 볼 때 개선의 여지가 충분하다고 하겠다.

〈표 2〉 선진국 병상당 의사수, 간호사수

	100병상당 의사수	100병상당 간호사수
미국	71.6	221
영국	40.7	120
독일	37.6	99.8
프랑스	35.2	69.7
일본	12.5	43.5

자료: 1998년 후생노동성, OECD

(4) 최근의 의료관련노동조합의 성명과 견해들

다음은 최근의 일본의 의료관련 노동조합들이 내세우고 있는 과제들로서 이를 통해 일본의 의료관련 노동조합의 움직임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 2년과정의 통신제 정보(2005년도 입서관련) (2005. 1)
(2년간의 통신교육에 의해 준간호사가 간호사의 자격을 취득하는 코스)
- 안전하고 질높은 간호를 실시하기 위한 수급대책에 관한 요청(2004. 9)
- 산업재해병원재편성계획에 관한 성명(2004. 4)
- 독립행정법인에 대한 반대집회(2004. 4)
- 2004년도 진료보수개정에 관하여
- 계약제직원업무의 「임시직 고용·업무위탁화」방책에 대한 항의와 철회요구 성명(2003. 12)

- 의사·간호사의 일부파견 용인에 항의(2003. 11. 26)
- 간호직장의 의료사고 방지 실태조사 결과·보고서(2003. 9. 10)
- 「2002년도 야근 실태조사」결과(2003. 9. 10)
- 의료분야의 일부파견용인에 항의(2003. 6. 30)
- 우리가 지향하는 의료제공체제의 모습(2003. 6. 30)
- 「안전·안심의 의료제도 확립」을 향한 총력투쟁(2003. 4. 1)
- 간호직에 의한 정맥주사의 해금에 관해(2002. 10. 23)
- 공적의료기관의 충실·발전을(2002. 6. 20)
- 의료개악법안의 국회제출에 항의, 철회 요구(2002. 3. 1)
- 진료보수 2002년 개정내용에 관하여(2002. 2. 20)
- 2001년 간호 프로젝트 보고(2001. 9. 26)
- 제언·의료노동에 대한 진료보수상의 평가에 대하여(2001. 9. 12)
- 2002년 진료보수 개정을 향한 의료노동에 관한 평가를 중심으로 한 요구안(2001. 7)
- 일본노동조합연합회가 제안하는 의료사고방지위원회의 내용(2001. 4. 11)
- 간호현장실태조사(2001. 5. 9)
- 병원 약제사 배치기준 개선의 요구(2001. 3. 23)
- 병원급식 센터방식(원외조리)에 대한 기본적인 방침과 대응에 대하여(2001. 3. 22)
- 임금체계의 변경, 퇴직금의 검토에 대한 대응(2001. 3. 5)
- 간호사의 배상책임보험에 관하여(2000. 11. 15)
- 「요양형병상군」에의 대응에 관하여(2000. 3. 24)
- 준간호사의 이행교육에 관한 앙케이트(1999. 11. 15)
- 「자질향상검토회」보고서에 대한 일본의료노동조합연합회의 견해(1999. 7. 5)
- 의료·간호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한 긴급제언(1999. 3. 24)